

청년층 2명중 1명은 '백수'

경제활동 406만6000명 4.4%↓ ...경제활동참가율 50.3% 공무원 인기 시들 공시생 6.1%p 하락...일반기업보다 낮아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도 감소했다.

특히 안정적인 직장 및 노후보장 방면에서 인기가 높았던 공무원 인기가 떨어지면서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 비율이 역대 최초로 일반기업체 준비 비율보다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층 중 경제활동인구는 40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425만2000명) 대비 4.4% 감소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보다 0.2%p 하락한 50.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청년 둘 중 하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청년 취업 시험 준비자 역시 지난 2022년 4월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시험 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9%로, 지난해(15.2%)보다 1.3%p 줄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분야별로 보면 일반직공무원이 지난

5월 기준 1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18만6000명)에 견줘 29.6% 감소했다. 전체 청년 취업 시험 준비자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로 전년(29.3%)에 견줘 6.1%p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최초로 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율이 일반기업체(29.7%) 준비 비율을 하회했다.

한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383만 2000명으로 1년간 17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0.7%p 하락한 46.9%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 실업자는 27만6000명으로 2만 8000명 늘어 실업률은 0.9%p 오른 6.7%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알래스카' 팝업스토어 진행

19일~8월4일 본관 1층

광주신세계가 오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본관 1층에서 '알래스카 팝업스토어' 행사를 열고,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에 나선다. <사진>

아웃도어 브랜드 '알래스카'는 영캐주얼 브랜드 '폴햄'의 흡인속 형태로 광주신세계에 자리잡았지만, 꾸준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 단독 브랜드 팝업이 마련됐다.

알래스카 팝업스토어에서는 2024년 SS시즌 전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후드 경량 바람막이'는 기

존가 7만9000원보다 62% 할인된 2만9900원에, '알래스카 탄성 카고 스트레이트 팬츠' 역시 기존보다 57% 할인된 2만9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또 구매 고객 중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알래스카 장우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캠핑과 아웃도어 인기가 높아지면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갖춘 알래스카 팝업스토어에도 많은 고객들께서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제품 최대 70% 할인과 사은품 증정 등 풍성한 혜택을 누리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무안 승원펠리체 아파트 자연재해 위험 '안전' 판정

무안군, 안전 논란에 긴급점검

무안 승원펠리체(사진) 아파트 단지 부지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논란에 대해 무안군이 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무안군은 지난 2월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승원펠리체 더클래스 주변 지반에 대한 긴급점검을 벌이고, 지반 침하 및 기울기 발생이 없는 것을 확인해 지난 5월 준공을 승인했다. 앞서 이 아파트 단지가 시공 중이던 올 1월 무안군에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논란이 불거졌다. 준공이 끝난 무안승원펠리체 에코시티와 준공 중이던 무안승원펠리체 더클래스는 인접한 단지인데, 두 단지 사이의 일부 구간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구간은 지하 지반층의 석회암 공동(지층 내 생긴 빈 공간) 가능성 때문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었다.

시공사인 승원건설은 공사에 앞서 무안군에 지반조사 보고서와 지하계측 보고서, GPR 탐사보고서를 제출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제출했지만, 무안군 지역 언론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 차원의 긴급 조사가 이뤄졌다.

무안군은 승원건설이 제출한 관련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지반 상태와 그라우팅, 파일 시공이 적정했는지를 계속했다. 이어 지반 침하로 인한 처



짐 발생이나 기울기 발생 여부를 조사했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무안군은 두 단지에서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올 하반기 내에 해당 부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강공사를 끝마친 성남리 일대 2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위험지구 해제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공사에 앞서 승원건설이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안전하다고 판단됐다"며 "이후 논란이 생겨 재차 검사를 실시했을 때도 안전한 것으로 판단돼 준공 승인을 했으며, 승원건설은 입주주민들을 위해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매년 1차례씩 계속 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총, 중장년 '전직 지원 E러닝 과정' 운영

중장년내일센터 접수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6일 "직장을 찾고 있거나 이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 E러닝(E-learning)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이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는 그동안 대면 교육 위주로 운영했던 방식에서 동영상 시청 방식으로 바뀌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총 13개로 중장년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력분석과 변화관리, 대인관계 이해, 구직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직지원 온라인 과정은 실업급여 수급 시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며 수료 후 센터방문자에게는 수료증과 소정의 수료 기념품도 제공한다.

김재중 중장년내일센터장은 "전직지원 이러닝 과정은 특히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만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전직지원 온라인 과정을 수강함으로써 100세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총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3년부터 지역 중장년(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및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 재취업과 경력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중장년내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충남 금산군 인삼농가 수해복구 지원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가 16일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의 인삼 재배현장을 찾아 긴급 수해복구작업에 나섰다. <사진>

전남농협 직원 40여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인삼을 수거해 폐기하고 파손된 차광막과 지

주막 등을 철거했다.

충남 금산군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 및 농경지 등이 침수됐으며, 벼, 인삼, 고추 등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탁 본부장은 "인삼은 생육환경이 까다롭고

재배기간이 긴만큼 이번 수해로 농가의 사름이 더욱 컸을 것"이라며 "충남을 비롯해 수해를 입은 전국의 농업인들이 빠르게 일상과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쫄깃쫄깃 감자빵 맛보세요" 1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춘천시 명물 감자빵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8일까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춘천 감자발 감자빵'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 춘천 감자빵은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로 반죽하며, 100% 국내산 감자를 사용한 건강 간식으로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유명하다. 행사 기간 중 오리지널 감자빵을 10개 구매 시 10% 할인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전남 기업 3곳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매연 저감형 디젤발전기 등 4개

올해 제2회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3개 기업의 4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16일 광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썬테크(주)의 감압기능을 탑재한 '매연 저감형 디젤발전기'와 채널 선택 및 보호 기능을 갖는 '디지털자동전압조정기가 구비된 디젤발전기', 지열기술 주식회사의 열적 안정성이 향상된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 주식회사 예방창호의 단열소재 구조개선으로 단열성이 향상된 '커튼월' 등이 심사를 통과했다.

김종열 청장은 "이들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기업

으로 성장해 줄 것을 믿는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감정이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66.09 (+5.17)
↓ 코스닥	839.61 (-13.27)
↓ 금리(국고채 3년)	3.035 (-0.041)
↑ 환율(USD)	1384.35 (+0.85)

현대자동차·기아차,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

24~26일 실시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기아 차량 전부가 해당되며, 점검 항목은 냉각수와 오일류, 타이어 공기압 등이다. 현대차그룹은 점검 고객을 대상으로 워셔

액 1통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전국 1237개 블루렌즈와 758개 오토큐에서 가능하며, 무상 점검 쿠폰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으면 된다.

현대차그룹은 무상 점검 쿠폰을 17일부터 19일까지 각 통합 고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